

## ‘화순 하천 오염’ 인근 축사서 대량유출 추정... 고의성 조사

“분뇨처리시설 잠금장치 잠그지 않았다” 축산업자 진술

“축사~하천으로 연결된 하수관 발견...사용목적 조사”

화순의 한 하천이 오염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가운데 화순군과 경찰이 인근 축사에서 분뇨가 대량 방출된 것으로 보고 연관성 여부 등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9면>

20일 화순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순군 동면 한 마을 앞 하천이 오염돼 악취가 풍기고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오염이 심한 하천은 동면 천덕리 마을 앞이며 거품과 죽은 물고기가 다수 발견됐다.

또 이 구간은 화순천의 상류로 오염된 물이 하류지역까지 흐른 것으로 추정돼 물고기 폐사 등 환경오염 피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바닥에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작은 알갱이가 가리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분 분석을 위해 수거했다.

또 “돼지 분뇨로 추정되는 악취가 났다”는 하천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1km정도 떨어진 축사와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축사는 40여년전부터 돼지 300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에 선정돼 2억4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액비돈사순환시설’을 설치하고 2017년 4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시설을 통해 돼지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발효 등의 과정을 거쳐 100% 천연액상비료로 생산돼 농가에 보급된다.

화순군과 경찰은 100t 정도의 양이 담겨있는 4개의 탱크 중 1기의 탱크에서 액상비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직원이 탱크 밸브를 잠그지 않고 전날 퇴근을 한 것 같다. 탱크에서 나온 분뇨가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하고 밸브를 뒤늦게 잠겼다”는 축산업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화순군 등은 축산업자가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화순군은 현장 조사 과정에서 풀에 가려져 있고 하천으로 연결돼 있는 하수관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분뇨처리시설 탱크에 연결된 호수가 파손돼 비료화된 분뇨가 하천으로 흘렀다는 축산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



20일 오전 화순군 동면 한 하천이 오염돼 붉게 변하고 있다.

를 하고 있다”며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 “태극기가 바닷물에 출렁입니다”

완도 소안도, 친환경 부표 2420개로 태극기 조형물 설치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 해상에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다.

완도군은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소안도 바닷물 담수호에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의 하나로 친환경 부표 태극기 조형물을 설치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고 ‘가고 싶은 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취지다.

바다 태극기는 가로 18m, 세로 12m 그물(216㎡)에 2420여 친환경 부표를 붙여 제작했다.

1630개 하얀색 부표 바탕에 태극 문양은 빨강 318개, 파랑 318개, 건곤갈리 패는 158개 검정 부표를 하나하나 매달았다.

태극기 조형물이 설치된 바닷물 담수호는 소안항에서 1.2km 거리에 있다.

노준성(41) 소안면 청년회장은 “육지에서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지만 소안도에서는 태

극기가 바닷물에 출렁인다”며 “이곳을 지나면 다시한번 나라사랑 정신이 절로 난다”고 밝혔다.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더불어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3대 성지로 불리는 소안도는 모든 가정이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섬으로도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6000여 주민 중 800명이 ‘불령선인’으로 지목될만큼 항일운동이 뜨거웠던 곳이다. 독립운동가 89명을 배출했다.

소안도를 오가는 여객선 이름도 ‘대한호’, ‘민국호’, ‘만세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친환경 부표 태극기는 ‘가고 싶은 섬’ 소안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라사랑 의미를 확산시키고 완도의 청정바다 지키기 운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 광주·전남 사흘 연속 ‘확진자 0명’...진정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키로

광주와 전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0명’을 기록하면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8면>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18일에 이어 19일에도 지역 감염자는 추가로 발

생하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는 광주 485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숨졌고 91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391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전남 누적 확진자는 167명이다. 현재 57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 110명은 격리 해제됐다.

광주시는 20일로 끝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4종 집합금지시설 중 13종은 ‘집합제한’으로 조정했으며, 북구는 방역중점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기동취재본부

### 전두환 형사재판 마무리 수순...구형량 관심

광주지법, 오늘 17번째 재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전씨가 기소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 관측과 함께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서는 전씨 측이 부른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신현목 전 국방부 5·18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팀장, 장사복 전 전교사 참모장 등 4명에 대한 신문이 예고돼 있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았고, 1명은 투병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 모두 법정에서 나오지도 미지수다.

앞서 재판장은 다음 기일(21일 재판)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거나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오는 10월 또는 11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선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와 이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의 실체를 알고서도 전씨가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조비오 신부

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는지 여부다.

검찰은 다양한 자료와 여러 진술을 검토·확인, 1980년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지었다. 또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전씨에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약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수의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했다. 김민정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귍니다.  
사람의 발길이 찾아온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